

## 4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최** 근 우리나라 양돈업계의 큰 이슈는 돈 콜레라에 집중이 되고 있다. 99년말, 그러니까 금년까지만 돈콜레라 백신을 접종하고, 2000년도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이상 돈 콜레라의 발병이 없을 경우 2001년도엔 돈콜레라 비발생국가 선포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돈콜레라에 대한 근절방안 이었다. 그러나 제주도, 논산지역, 그리고 용인지역에서의 계속되는 돈콜레라 발생보고는 지금까지의 이러한 대책들이 결국은 현실감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돈콜레라의 근절을 위해 생각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과 봄철 한절기 기본 방역관리등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 1. 돈콜레라의 근절이 어려운 이유



이재춘 원장

(한별 피그 클리닉, 한국양돈컨설팅그룹)

돈콜레라의 근절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는 결국 백신 접종율의 저조와 부적절한 백신접종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백신접종률이 저조한 데는 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의 책임이 일단 크지만, 궁극적으로

불 때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양돈농가에 대한 실태 파악과 밀착된 홍보가 부족했던 점도 간과 할 수 없다. 현재까지 백신접종을 철저히 할 경우 돈콜레라는 예방할 수 있으며, 근절도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으나 정작 이를 시행해야 할 양돈농가에서는 일손이 모자라서, 또는 자돈으로 판매하면 그만인데... 등등의 이유로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접종을 않는 경우가 공공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돈콜레라의 예방접종 확인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백신접종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소규모 영세농가가 아직도 많이 있고, 또 백신접종을 1차로만 끝내는 등 백신접종을 하되 접종시기 및 방법이 부적절한 농장이 아직도 많이 있으며, 더욱 문제되는 것은 질병 감염돼지가 지역의 제한 없이 전국 어디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보통 전업농장에 대한 감염실태 파악 및 백신접종에 대한 홍보활동이 많은데, 실제로 이러한 농가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 2. 돈콜레라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들

- 돈콜레라 박멸을 위한 예산배정이 늘어나야 한다. 즉 돈콜레라 박멸대책 홍보 및 발병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백신접종비 지원, 그리고 살처분 보상비가 충분히 지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편성이 되어져야 한다.

- 돼지의 이동시 돈콜레라 감염여부 또는 백신 접종여부를 알기 위한 검사를 필한 후 이동을 한다. 특히 위탁사육이나 자돈판매 농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 돼지 중개상인들이 거래하거나 임시 사육중인 돼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혈청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돈콜레라 발병상황 파악 및 농가에 대한 밀착 지도를 위한 양돈 전문수의사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돈콜레라 박멸은 조금씩 서둘러서는 안된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결할 문제이다.

## 3. 봄철 환절기 방역관리

겨울철 내내 밀폐된 돈사에 있다가 환절기 일교차가 커지게 되면 돼지들은 항병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각종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게 된다. 더구나 TGE나 PED와 같은 설사병의 피해를 입었던 농장의 경우 봄철 환절기에 호흡기 질병의 발생위험이 높아진다.

### 1) 백신접종

모돈에 백신접종을 매 산차마다 실시하는 경우 일본뇌염 백신을 제외한 별도의 계절백신이 모돈에게는 필요치 않으나, 옹돈의 경우는 봄철과 가을철, 연 2회 필히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봄철에 실시해야 할 옹돈 방역은 돈콜레라, 돈단독, 그리고 파보 백신이 있다. 또한 4월 중으로

〈표1〉 봄철 모돈 및 옹돈 백신접종 계획표(예)

백신	접종시기(목요일 접종)
돈콜레라	4월 첫째주
일본뇌염 1차	4월 둘째주
돈단독	4월 셋째주
파보	4월 넷째주
일본뇌염 2차	1차접종 3~4주 후

\*후보돈의 일본뇌염 백신 접종도 동일하게 실시한다.

는 번식돈군(옹돈, 모돈, 후보모돈, 후보옹돈)에 대한 일본뇌염 백신 1차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1차접종 3~4주후 2차 보강 접종 실시)

자돈의 호흡기 백신 접종을 철저히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기질병의 피해가 큰 농장은 기본적인 사양관리 및 환경관리 사항을 재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병성감정을 통해 감수성 약제 선정 및 백신 프로그램 변경 등도 고려해야 한다.

### 2) 내외부구충

대개 후보돈의 구충은 선발 직후 실시하며 모돈의 경우는 분만전에 실시하게 되는데, 옹돈은 백신접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봄, 가을 연 2회 실시하게 된다. 구충은 내외부 구충을 함께 실시해야 하며, 톱밥돈사가 있는 농장의 경우는 계절에 관계없이 1~2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구충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 3) 항생제 크리닝

대부분 농장의 경우 겨울철 내내 전체 돈군에 병원균의 오염도가 높아져 있게 되므로, 일교차가 커지게 되면 질병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

TGE나 PED와 같은 설사병의 피해를 입었던 농장의 경우 봄철 환절기에 호흡기 질병의 발생위험이 높아진다.



- 방목장의 객토작업 및 생석회 살포
- 웅돈방 및 군사돈방의 수세 및 소독, 돈사별 대청소
- 돈사내 일교차를 줄이기 위한 관리

#### 4. 일반 사양관리

▲후보돈 구입시기는 여름철 교배를 목적으로 할 경우 4월 또는 5월까지는 도입이 완료되어야 한다.

고 있다. 따라서 백신접종과 병행하여 항생제를 돈군에 예방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질병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다.

크리닝 약제는 환돈의 가검물 검사를 통해 감수성있는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비육돈에서의 약제는 호흡기질병 예방을 위한 약제가 사용이 된다. 번식돈군에서는 비육돈에서와 마찬가지로 호흡기 질병에 대한 약제가 주로 선정이 되지만, 농장의 상황에 따라 비뇨생식기 질환에 대한 약제를 위주로 선정이 되기도 한다.

크리닝 약제가 선정이 되었으면 약제에 따라 투약기간과 투여량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한다. 대개 투여용량은 치료수준으로 한다.

크리닝시에 출하예정 1개월 이내의 비육돈은 제외해야 하며, 도태대상 번식돈도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크리닝 중이나, 또는 크리닝이 끝난후 휴약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번식돈의 도태판매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 4) 기타 위생관리

- 각종 기구류의 소독

#### 1) 후보돈 구입계획 수립

매년 여름철 임신율이 저조하고 또한 모돈의 도태율이 높으므로 평상시 보다 후보돈이 추가로 요구된다. 후보돈 구입시기는 여름철 교배를 목적으로 할 경우 4월 또는 5월까지의 도입이 완료되어야 한다.

#### 2) 사료관리

- 모든 사료통의 주기적인 청소로 사료통 주변에 붙어있는 사료 찌꺼기를 제거하며 사료통에 사료가 그대로 남아 부패하지 않도록 한다.

- 비육돈의 사료통 비우기는 주 2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습식 급이기의 경우는 주변의 사료 찌꺼기가 특히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 1회 급이기 및 주변의 청소를 해 주어야 한다.

- 피드빈 비우기와 청소

- 모돈의 사료급여량 조절 : 일반적으로 봄철에 과비 모돈의 발생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겨울철 다소 늘려 주었던 양을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이므로 다시 정상 급여수준으로 맞추어 주어야 한다.

- 사료재고 관리 : 기온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사료의 보관기간도 단축되어야 한다. **양돈**